

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

로컬푸드 열풍타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꾸러미사업 활성화 추세

- 서귀포시연합회를 포함한 관내 농업인단체,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·운영 사례
 - 서귀포시연합회(회장 김한중) 및 새농민회, 고향주부모임·농가 주부모임은 7월 25일부터 농협서귀포시지부 주차장에서 ‘농축산물 직거래장터’를 개장
 - 직거래장터는 매주 2일간(목, 금) 개장하는데, 12시~19시까지 운영되며, 관내 농업인들이 수확하고 포장해 내놓은 농산물을 시중 대비 10~20%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
 - 또한 ‘1일 유통원칙’을 준수하고 있어 신선한 수박·마늘·토마토 등의 제주산 농산물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
 -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장터 운영기금으로 조성하고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
 -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. 매출액은 2011년 5,700만원에서 2012년에는 2억 3,200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며, 올해에는 매출 6억원 달성을 예상
-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, 정부세종청사 및 첫마을 입주인 대상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
 -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(회장 김정기)는 7월 17일(수)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~오후 6시에 한솔동 굴다리에서 “첫마을 농업인 직거래장터”를 개설·운영중
 - 세종시연합회는 이전 연기군연합회 시절부터 행정 관청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, 시연합회 회관 1층에 직거래 매장을 개설·운영해 온 경험이 있음. 이번 직거래장터는 농림축산식품부, 세종특별자치시, 농협중앙회,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.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 부처들은 청사 주요 지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여, 공무원들의 장터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음
 - 이를 통해 농축산물 구매를 위해 대전(유성)이나 조치원 등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및 첫마을 입주민들에게 세종시 관내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유통 경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
- 천안시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본격 시작
 - 천안시연합회 김지동 전 회장 등의 천안시 관내 농업인들은 영농조합법인을 결성(천안시농특산물유통사업단, 천안로컬푸드꾸러미사업단)하여 자체 산지유통센터(APC, 저온저장고, 전처리시설 등)를 설치하고, 관내 농축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을 본격 시작
 - 그간 천안시는 ‘하늘그린’이라는 자체 지역 브랜드를 활용하여 수도권 시장을 목표로 쌀·포도·배·오이 등의 농산물을 판매해 왔으나, 관내 인구가 60만명에 육박하고 인근 아산·세종 등의 폭발적 성장에 대응한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에는 소

홀해 왔다는 자체 진단 및 외부 지적이 있어 왔음(천안시 농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,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2009년 실시 연구 용역)

- 이에 김지동 전 회장 등 한농연 회원을 포함한 관내 농업인들은 “무항생제 계란, 우리콩두부, 우리콩 콩나물, 잡곡” 등을 기본으로 하고,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·채소·육류·가공식품 등을 월 2회(월회비 6만원) 천안시민 등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임
- 한농연 회원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은 천안시의 사례가 전국 최초이며,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확산·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됨

충남 기초 지자체들의 모범 조례 소개

- 보령시, 농민단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
 - 충남 보령시는 최근 농어업 관련 단체의 책무를 비롯해 예산 지원 범위,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중
 - 이 조례안은, 보령시가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훈련, 경영지도,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현대화, 농어업 경영기법 개선,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담고 있음
 - 특히 단체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, 단체의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, 자동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음
 - 아울러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 습득,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함
 - 이밖에도 관련 단체들이 농어업·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함으로써 농어촌발전에 기여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책무를 포함
- 서천군,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택시 요금 지원 조례
 - 이 조례는 5월 31일부터 시행중인데,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‘희망택시’를 운행하여,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서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 - 주민들은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,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. 택시 탑승자는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군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 - 이러한 조례는 아일랜드를 포함한 농업 선진국들에도 도입·운영중인 것임(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 박사 페이스북 인용)